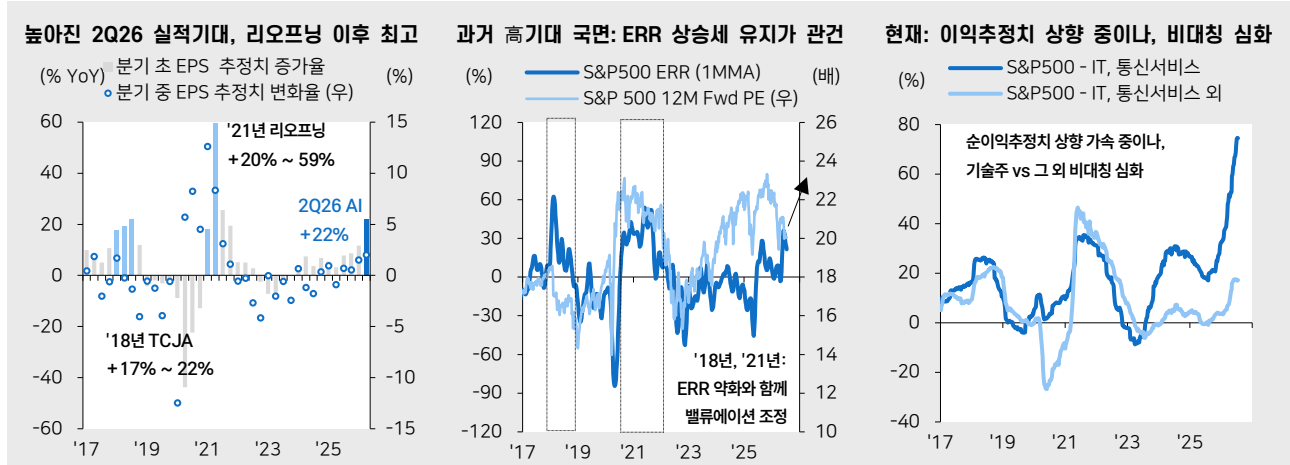


오늘의 차트

박보경 연구원

높아진 실적 허들: 서프라이즈보다 중요한 것



자료: Bloomberg, Refinitiv I/B/E/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PHLX가 고점 대비 -20% 하락하며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하는 등, 최근 AI 투자 내러티브를 둘러싼 불안을 대변하며 주도섹터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2Q 빅테크 실적발표가 안도감 형성의 계기로 작용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미 실적 기대가 높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에 대한 보상보다 실망에 따른 하락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Q26 예상 순이익 성장률은 +22%로, 2021년 리오프닝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실적시즌 개막 이후에도 2Q26 추정치는 +2% 상향은 지속되고 있다. 이미 높아진 눈높이가 반영되어 있는 만큼, 단순 서프라이즈만으로는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실적기대가 높았던 사례에서도, 이후 증시 추세는 서프라이즈 여부보다 ERR (Earnings Revision Rate)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실제로 2018년, 2021년 일회성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기 시작한 시기에 ERR과 밸류에이션이 동반 조정되었다. 즉 높은 이익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ERR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익개선 기대가 AI 투자 수혜 섹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타 섹터의 예상 순이익 증가율도 +17%까지 회복했으나, 여전히 IT·통신서비스의 추정치 증가율이 +75%로 압도적이다. 이익 성장의 상당 부분이 AI 투자 지속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개별 뉴스플로우도 투자 사이클 전반에 대한 우려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신뢰를 가장 먼저 검증하는 이벤트가 바로 금주 시작되는 빅테크 실적발표이다. 대규모 CapEx 집행이 당연해진 지금,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수요·수익화 경로가 함께 확인되어야 현재의 ERR 개선 경로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